Ⅰ. 머리말

○ 지난 '97년초부터 시작된 대기업의 연이은 부도사태와 동남아 금융위기의 확산으로 인한 증권시장에서의 외국투자자금의 대량이탈, 큰 폭의 원화가치 평가절하에 따른 환율 급상승 등은 국내 外換保有高의 급속한 감소를 가져와 모라토리엄 임박이라는 국가부도위기를 초래함으로써 '97년 11월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었음.

○ IMF 구제금융은 高金利政策에 의한 외자유입 촉진,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, 기업들의 경영투명성 제고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많은 실행조건들을 요구함으로써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전반의 構造調整으로 경제구성원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음.

○ 특히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5개의 은행이 퇴출되었고, 증권, 종금, 리스, 신용금고 등 수 많은 금융기관이 퇴출되거나 합병되었음. 保險産業에서도 지난 '98년 8월 4개 생보사가 퇴출당하였고, 2개의 보증사가 1개사로 합병·통합되었으며,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.

○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과 더불어 감독당국에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을 제정하여 이 기준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을 처리할 방침으로 있어 보험사들에게 財務健全性 提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.

○ 본고는 IMF체제 이후 보험산업을 둘러싼 경제 및 금융환경변화를 개관하고 특히 보험산업의 제반 環境變化要素, 즉 지급여력제도, 보험회계제도, 경영실태평가제도, 리스크관리제도 등 일련의 변화된 제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보험사들의 경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함